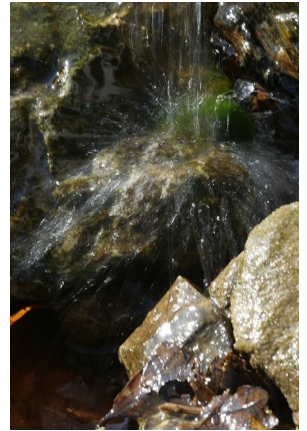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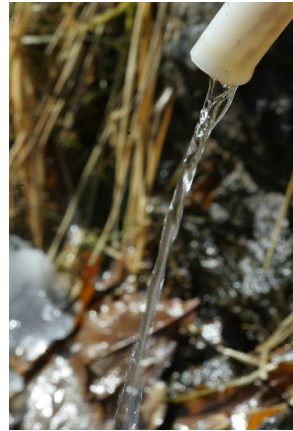


겨울 산에서

올해 들어 처음 산에 올랐다. 눈이 덮인 등산로는 여러 발자국과 흔적으로 지나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.



겨울 날씨가 상관없이 파리는 날아다녔다. 털이 복실복실,



약수터의 물은 얼지 않고 졸졸 흘러 내렸다. 한 모금 벌컥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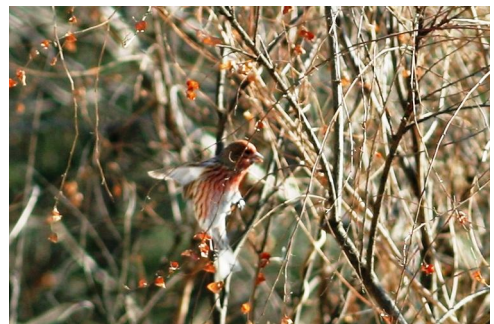
월동하다가 자기 집에서 떨어져 일어 죽은 뱀허물쌍살벌이 몇 마리 보였다. 녀석들의 겨우살이 집으로 추정되는 나무 발견!



얇은 물도 계속 흐르고 물속에는 하루살이와 앞새우, 플라나리아들이 가득했다. 앞새우는 매우 수가 많았지만, 동작이 너무 빨라 찍기 어려웠다.



돌 밑에서 지난 여름 만들어졌을 가위벌의 집을 발견하였다. 빈 것 일까 들어있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에 안을 잘라보니 튼실한 애벌레가 들어있다.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겠지?



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앞을 바라보니 양진이?가 나무 씨를 물고 야단이다. 겨울산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.